



보도시점 2026. 5. 10.(일) 11:00
5. 11.(월) 조간

배포 2026. 5. 8.(금) 16:00

여름 휴가철 농촌관광시설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점검합니다!

- 휴가철 농촌관광시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사전 점검
- 화재 안전, 위생 등 관리 미흡 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여름 휴가철 농촌관광 시설 이용객 증가 등에 대비하여 5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하절기 농촌 관광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6년 하절기 안전점검은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여부, 부대 시설 운영 여부 등의 점검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중 5천 5백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소방·위생 등 지방정부의 안전관리 담당 부서가 안전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소방시설 사용·점검, 피난·방화시설 관리, 건물·전기·가스 등 관리·점검, 위생관리 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농식품부도 지방정부·농어촌공사 등과 함께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소방·안전 및 위생관리 미흡 등의 사례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 안심하고 농촌을 찾으실 수 있도록 농촌관광시설의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농촌관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책임자	과 장	정문기 (044-201-1581)
		담당자	사무관	장규임 (044-201-1590)